

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

윤 안병권 기자 | 승인 2025.05.22 10:01

지진, 집중호우 등 재해대비 나서



[충청타임즈]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(지사장 주은규)는 지난 20일 당진시 면천면 소재 순성저수지에서 집중호우, 태풍, 지진 등에 따른 저수지 붕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해대비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.

이날 행사는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등의 가상상황(순성저수지 제방 붕괴)을 부여하고 1. 붕괴우려(주의단계) 2. 붕괴예상(경계단계) 3. 붕괴직전, 붕괴발생(심각단계) 4. 복구(종료단계) 등 저수지 상황유형에 따른 단계별 대응훈련 및 대피(주민대피 방송 등) 등 현장 비상 상황 대처 훈련을 실시하고 자체 평가를 가졌다.

주은규 지사장은 "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저수지 제방 붕괴의 가상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, 앞으로도 재해대비 비상 대처 훈련은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황별 대응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"고 훈련소감을 밝혔다.

/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@cctimes.kr

저작권자 ©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안병권 기자